

알뜰폰 가입자 4개월째 감소 ‘2.0 정책’ 반등 카드 통할까

1분기 순증 뒤 번호이동 흐름 급반전
KT 위약금 면제 특수 일회성 그쳐
QoS 도입·전파사용료 감면율 90%
도매대가 산정 통신 3사로 다변화
400Kbps 속도·채감 효과는 과제

알뜰폰이 번호이동 시장에서 4개월 연속 순감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부터 추진하는 ‘알뜰폰 2.0’ 정책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알뜰폰(MVN)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번호이동 시장에서 3만2077명 순감했다. 1분기에는 4만3706명 순증했지만, 4월 순감으로 전환한 뒤 4개월 연속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KT 위약금 면제로 인한 반짝 특수가 끝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KT는 지난 해 말 불법 펌토셀 해킹 사고의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면제 기한이 올해 1월에서 11월 말로 연장됐지만, 시행 초기에 가입자 이동이 대거 집중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반사이익이 일회성에 그쳤다.

알뜰폰 업계는 이달 1일 시행된 정부의 ‘알뜰폰 2.0’ 정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 자원책인 데이터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일 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심옵선(QoS)을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더라도 추가요금 없이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알뜰폰에는 400Kbps 속도가 제공된다.

중소 알뜰폰 업체의 운영 부담 감소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정부에 매 분기 납부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된다. 또 SK텔레콤이 대표 사업자로 결정해온 도매대가를 앞으로는 KT와 LG유플러스도 함께 산정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는 망 대여료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게 된다.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알뜰폰 시장의 독립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효과가 곧바로 가입자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데이터 안심옵선의 경우 앞서 통신 3사가 LTE·5G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때에도 400Kbps 속도로는 고용량 영상 콘텐츠 이용자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통신사 간 가성비 요금제 출시 경쟁이 치열해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은 구조다.

하창직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망 도매대가 산정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체감은 업체마다 사업 규모와 재무적 체력이 달라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LG유플러스, 알뜰폰 고객 혜택 ‘알닷컴클럽’

외식·문화·구독 등 생활 할인 제공
12개월 이상 이용자에 특별 응모
향후 유플러스망 이용자까지 확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고객 케어 프로그램 ‘알닷컴클럽’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고객들은 생활 혜택과 차별화된 이용 경험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알뜰폰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알닷컴클럽 혜택은 두 가지다. 알닷컴을 통해 개통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베이직 클럽’은 외식·문화·구독·생활 분야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 중심으로 구성했다. BHC 치킨, 이마트24, 롯데렌터카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구독 할인도 제공한다.

‘스페셜 클럽’은 선착순 응모 혜택을 더한 것으로 이용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이에 다이소 리들샷, PDRN 에센스 등 인기 제품을 선착순 응

모를 통해 제공한다. 이 밖에 구글 AI 구독, BHC 할인, CGV 콤보 할인권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새로운 혜택을 제공해 고객이 정기적으로 혜택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고객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닷컴클럽 혜택은 향후 유플러스망 알뜰폰 이용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알닷컴은 1000개 이상의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해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민선 기자

SK텔레콤, 2분기 실적 반등… AI DC 성장 가속

매출 4조3591억·영업익 5660억
번호이동 가입자 15만6842명 순증

SK텔레콤이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한 결과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을 수치로 입증했다.

SK텔레콤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3591억원, 영업이익 566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각각 0.5%, 67.3% 증가한 수치다.

다만 회사 측은 “영업이익은 일시적 지출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분기에는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AIDC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5% 증가한 1362억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지난달 AIDC 사업 개발을 전담하는 SK하이퍼를 설립했다. 부지, 전력 등 AIDC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

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고객을 유치하는 등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5GW 규모 AI DC를 단계적으로 가동하는게 목표다.

통신사업 부문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번호이동을 통해 가입자 순증(15만6842명)을 기록했다.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해 전반적인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고객 이용 경험, 서비스 접근성 등을 개선하며 고객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게임즈, 적자 축소 하반기 신작 승부

2분기 영업손실 230억 기록
‘도깨비의세계’ 등 순차 출시

카카오게임즈가 2분기 영업적자를 이어갔지만 손실 폭을 줄이며 체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회사는 하반기부터 대형 신작을 잇달아 출시해 실적 반등에 나서는 한편 비용 효율화와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 최근 제기된 라인게임즈와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750억원, 영업손실 2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기존 게임 매출 감소와 신작 공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다. 다만 영업손실은 전 분기보다 약 10% 감소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였다.

사업 부문별로는 PC 온라인 게임 매출이 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실적을 지탱했다. 모바일 게임 매

출은 527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3분기부터 신작 중심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하반기 첫 주자는 슈퍼캐트가 개발한 2.5D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도깨비의세계’다. 이달 사전예약을 시작해 10월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적 세계관과 레트로 감성 그래픽, 자유로운 스킬 선택 빌딩, 문과 중심 협력 콘텐츠를 앞세워 차별화를 노린다.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오딘Q: 발키리스콜’은 시장 환경과 완성도를 고려해 출시 시점을 2027년 1월로 조정했다. 언리얼 엔진5 기반 삼리스 오픈월드와 협동 중심 콘텐츠를 앞세워 글로벌 MMORPG 시장을 공략한다.

올해 4분기에는 엑스엘게임즈의 온라인 액션 RPG ‘아키에이지 크로니클’과 타이니핀게임즈의 전략 어드벤처 RPG ‘던전 어라이즈’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CNS, 전국 14개 공항 AI 전환 이끈다

AI 전략·데이터·거버넌스 등 설계

LG CNS가 공항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 CNS는 한국공항공사의 AI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KACAI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을 통해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선정한 AI 선도기관으로 2025년부터 총 50개의 AI 혁신 과제를 수행 중이다.

LG CNS는 본 사업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AI를 활용해 ▲공항 운영 최적화 ▲고객 서비스 혁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핵심 서비스 발굴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AI 전략 컨설팅부터 AI·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AI 거버넌스 구축, 핵심 과제 기술검증(PoC), 후속 사업 실행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LG CNS 본사 전경.

/LG CNS

‘에이전틱 AI’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공항 내 이상 상황 발생 시 현장 직원이 음성으로 상황을 남기면, AI 에이전트가 이를 자동으로 정리해 보고서 초안을 생성하고, 상황별 대응 절차를 안내한다.

이 같은 서비스 모델이 구체화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직원들의 보고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지원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

크래프톤, 게임스컴서 차기 성장동력 공개

PUBG 기반 미공개 신작 등 5종 출품
액션 FPS부터 신규 IP까지 장르 확장

크래프톤이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6’에서 차세대 신작 5종을 공개하며 글로벌 이용자 공략에 나선다. 배틀그라운드(PUBG) 지식재산권(IP) 확장부터 신규 IP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차기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6에서 총 5종의 출품작을 공개한다. 출품작은 ▲펍지 스튜디오 미공개 신작 ▲NO LAW ▲프로젝트 제타 ▲에이지 트루스터 ▲타래: 언바운드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작품은 펍지 스튜디오의 미공개 신작이다. PUBG IP를 기

반으로 개발 중인 액션 중심 1인칭 슈팅(FPS) 게임으로, 태평양 북서부의 숲과 소도시를 배경으로 매 플레이마다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NO LAW’는 사이버 누아르 분위기의 항구 도시 ‘포트 디자이너’를 무대로 한 이머시브 오픈월드 FPS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이용자는 은퇴한 군인 ‘그레이 하커’가 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임무와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전투와 잠입, 탐험 요소를 결합한 자유도 높은 플레이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제타’는 3인씩 구성된 4개 팀이 핵심 자원 ‘프리즘’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멀티팀 택티컬 아레나(MTA) 장르다. 전사와 암살자, 마법사, 원거리 공격수 등 다양한 역할군을 선택해 전략과 팀워크를 겨루는 방식이다.

/최빛나 기자